

後鄧時代 中國政治體制變化와 對韓半島정책

高 成 彬*

목 차

서 론

연성의 체제변화로의 진행

연성의 체제변화에 대한 묵시적동의: 지식인의 논쟁과 대중의 정서

중국 지도체제 변화기에 있어서 대한반도 정책

서 론

과거의 정치체제의 특징을 논하는 것은 쉬우나 현재와 미래의 정치체제의 특징을 논하는 것은 힘들다. 중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毛澤東 시대의 중국은 이념우선의 권위주의시대였다. 鄧少平 중국은 개방과 실용주의체제였다. 그러나 현재의 江澤民과 미래의 胡錦濤 체제의 특징을 현재시점에서 정의내리는 것은 힘이 들다.¹⁾

천안문사태이래로 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21세기 後공산주의 세계(post-communist world)에서 중국은 과거와는 다른 여건을 받고 있다. 즉 국내적으로는 정치개혁요구의 증대, 외부적으로는 세계화이다. 당연히 중국의 권위주의적 레닌주의 당-국가체제(Leninist party-state)는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는 데는 가장 비효율적인체제라고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등시대의 중국정치체제의 변화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hypothesis)을 설정해 보았다.

첫째, 후등시대의 중국의 체제변화는 갑작스런 변란에 의해서 몰락과 같은 변화보다는 “軟性的 변화”(soft transformation)를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강택민의 사영기업가 등을 포함한 자본주의자들의 공산당에의 허용, 鄉村선거, “三個代表論”(three representative theory), 평화로운 호금도 지도체제로의 권력이양 등에서 볼 때 공산주의체제의 급격한 변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1) 중국정치체제의 특성변화에 대해서는 Michel Oksenberg, “China’s Political System: Challen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China Journal, Issues 45, January 2001, pp.21- 35; Parris Chang, “Changing the Guard, The China Journal, Issues 45, January 2001, pp. 37-43.

화보다도 “공산당에 의한 자발적인 점진적인 개혁”(party-led voluntarily gradual reform)에 의한 체제변화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의 지식인들과 대중들은 이론적으로는 정치개혁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점진적인 개혁과 연성의 체제변화에 대한 默示的 동의(tacit agreement)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식계에서는 이론적 합리성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중들사이에서도 민족주의적 정서가 퍼져있다. 즉, 지식계에서는 集體的 민주주의(collective democracy), 憲政的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 등에 대한 논쟁이 이러한 연성의 점진적 체제변화를 전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연성의 변화”와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와의 상관관계는 서로 선후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연관되어있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여론과 이에 대한 정책추진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일반화된 경우가 아니라는 면과 정책을 입안하는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아직도 여론의 검증에서 면제되어있고 종종 장기적으로 숨겨진 의도를 나타내는 발언을 많이 하면서 여론의 향방을 떠보기도 하고 하위관료들의 미래의 행동지침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민의 묵시적 동의와 공산당지도부의 자발적인 연성의 체제변화로 가는 정책적 전개와의 상관관계는 쉽게 그 선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즉 한편으로는 공산당의 정책들은 중국사회의 바람을 미리 따라가고 때로는 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듯이 보이고 따라서 묵시적 동의를 받고 있는 듯이 보이면서 때로는 산발적인 반대에 부딪쳐 피드백(feedback)을 당하기도 하는 듯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성의 체제변화는 중국식의 국가발전전략(chinese way of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의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즉 개혁과 변화는 중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대원칙 안에서 허용한다는 것이다.

연성의 체제변화로의 진행

본고에서의 연성의 변화의 의미는 “정치체제안에서의 체제개혁”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공산당주도의 정치사회변화, 카리스마적 지도체제에서 협의체적지도체제(consultative leadership)로의 변화, 세계화와 후공산주의 세계에서 새로운 이념적 정체성의 모색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중국식발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변화는 공산당지도체제의 의도이자 개혁의 성공적 결과에서 파생하는 중국의 변화의 특징이다. 상세하게 체제변화의 진행을 살펴본다.

1) 공산당 주도의 사회적 변화

중국의 사회적 변화를 논하며 천웨이썩(Chen Weixing)은 더크하임(Emile Durkheim)의 논의에 주목한다.²⁾ 즉 더크하임은 전통적 사회의 “기계적 결속”(mechanical solidarity)과 “유기체적 결속”(organic solidarity)으로 나누고 전자는 전통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보장이 안되고 공통의 가치에 종속된 것을 말하며 후자는 노동의 분화 이후에 개인의 출현과 연관이 있고 전문가를 인정하며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여 개인의 집단에 대한 종속을 부정한다.³⁾

천웨이썩은 이를 인용하여 중국은 개혁이래로 유기체적결속이 사회에 생성 발전되고 있는데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유기체적 결속이 개인주의의 출현을 촉진시키기보다는 개인의 조직체에의 귀속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한다. 즉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개인의 발견과 동시에 개인이 속한 조직체에의 의존도도 높이고 있다고 본 것이다.⁴⁾ 그만큼 그는 중국의 개혁이 개인주의보다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집단주의를 신장시키고 있다고 보는 데 이의 원인으로서는 사회변화가 개인의 주도가 아닌 공산당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는 개인의 생존이 직업적 전문성보다는 공산당에의 연관성이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더크하임의 개념을 배경으로 중국의 연성의 체제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공산당 주도에 의한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향촌선거(village elec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향촌선거는 촌민들이 직접 제한된 의미에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사회의 불만을 공산당의 주도에 의해서 어느정도 그 출구를 찾아 주는 제도로서 작용하고 있다. 비록 趙紫陽이 제안했던 직접선거는 실현이 안 되었지만 제한적인 선출 즉 공산당에 의한 지명된 후보의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실현이 되고 있다.⁵⁾ 이것은 결국 시장경제개혁과 함께 강력한 중앙통제방식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공산당지도

2) Chen Weix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rom Deng Xiaoping to Jiang Zemin", in EAI Working Paper, No.81,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9 August 2001), pp. 12-13.

3) Emil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64).

4) Chen Weix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rom Deng Xiaoping to Jiang Zemin", in EAI Working Paper, No.81,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9 August 2001), pp. 12-13.

5) Wu Guoguang, "The Dilemmas of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Reform of China, 1986-1988", in Roger V. Des Forges, Luo Ning and Wu Yen-bo (eds.), *Chinese Democracy and the Crisis of 1989: Chinese and American Reflection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3), pp. 143-145. China Rural Villagers' Self-Government Research Group (1994), *Study on the Election of Villages Committees in Rural China*, (Beijing: China's Society Press, 1994)를 참조.

부의 점진적이고 자발적인 개혁인 것이다.⁶⁾ 그리고 1991년과 1993년에는 경쟁 및 복수의 후보간의 자유투표가 행하여졌다.⁷⁾

2) 공산당에 의한 당내부개혁

중국공산당은 모택동의 “정치적 정당”(party of politics)에서 등소평의 “경제적정당”(party of economics)으로 후등시대에는 “인민의 정당”(party of the people)으로 변모해 왔다.⁸⁾

후등시대의 지도부는 후공산주의시대에 생존을 위해서는 당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인민의 힘에 의한 개혁보다는 당에 의한 자발적 개혁이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2001년 7월 1일 강택민은 공산당 80주년 기념사에서 기업가, 전문가, 기술인 등 자본주의자들을 당에 참여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21세기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만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닌 인민의 정당으로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획기적인 당과 정치개혁의 천명이다.

이에 대해 화이트(Gordon White)는 중국이 2단계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즉 “단일정당 다원주의”(single party pluralism)에서 “다당적 다원주의”(multi-party pluralism)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⁹⁾

이러한 맥락에서 허바오강(He Baogang)은 중국은 동구와 소련의 경우를 보고 타이완과 남한의 정치발전의 실례를 배워야 한다고 설파한다. 즉 이념정당에서 탈이념화 사회에서 개발독재의 권위주의 정당에서 서서히 정치민주화를 통해 대중정당으로 다원화 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급격한 체제변화를 면하고 연속선상에서 연성의 체제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¹⁰⁾

6) Jane Macartney, “China: Chinese Officials Overruling Democratic Process”, Reuters, 4 April 1995. Harry Harding, China’s second Revolution: Reform After Mao(Sydney: Allen and Unwin, 1987), p. 231.

7) Beijing Review, 21-7 October 1991, p. 25.

8) Chen Weix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rom Deng Xiaoping to Jiang Zemin”, in EAI Working Paper, No.81,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9 August 2001), p. 1.

9) Gordon White,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Reforms in China”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31, 1994, pp. 73-92.

10) He Baogang, “China”, in Wolfgang Sachsenroder and Ulrike E. Frings (eds.), Political Party Systems and Democratic Development in East and Southeast Asia, Vol.2:East Asia (Sydney: Ashgate Publishing, 1998), p. 81.

3) 카리스마적 지도체제에서 협의제적 지도체제로의 이행

대체적으로 중국의 지도체제는 세단계의 발전을 거쳐 왔다. 모택동시대의 정치이념우선의 카리스마적 지도체제, 덩소평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권위주의적 협의적 지도체제, 강택민시대의 협의제적 지도체제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이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이념의 역할이 사회동원의 힘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등시대의 중국은 삼두체제로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다. 각각 강택민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朱鎔基의 국가위원회, 李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 삼두체제의 권력의 축이었다.¹¹⁾ 이렇게 권력이 나뉘어 있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정책결정도 극단으로 흐르기 보다는 절충적이고 중용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협의제적 지도체제는 정책의 결정과 행사과정의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시키며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성격도 이념위주에서 실적위주로 흐를 가능성을 높여 준다. 따라서 협의제적 지도체제의 지속과 발전은 연성의 체제변화에 도움을 준다. 게다가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결코 구소련과 동구공산권과 같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 즉 안정 속에서의 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¹²⁾

2002년 11월 16차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 숙청과 같은 권력투쟁이 없이 - 호금도로의 지도부교체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티위스(Frederick C. Teiwes)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정상적 정치"(normal politics)의 증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¹³⁾ 그만큼 연성의 체제변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본고의 논리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11) See Zheng Yongnian, "China After the 2000 National People's Congress (II): Waning of the Jiang-Zhu Coalition.", in John Wong and Zheng Yongnian, *The Waning of the Jiang-Zhu Coalition?: China After the 2000 National People's Congress*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2000), East Asian Institute(EAI) Contemporary China Series No.29.

12) Guo Dehong et al., *Dang he guojia zhongda juece de licheng* (The Course of Major Policy Decisions of the Party and the State), (Beijing: Hongqi chubanshe, 1997), Vol.6, pp.479-480.

13) Frederick C. Teiwes, "Normal Politic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 China Journal*, No. 45, January 2001, p. 71.

연성의 체제변화에 대한 묵시적동의: 지식인의 논쟁과 대중의 정서

민족주의적 정서

비록 공산당이 만연한 부패와 지역적 불균형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체제붕괴(regime implosion)가 아닌 연성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개혁과 개방으로 물질적 발전으로 인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중국의 정치문화에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조화(social harmony)와 무질서(chaos)의 회피를 지향하는 정서가 깊이 스며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990년대에 미국 등 서구의 중국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코소보사태에서의 중국대사관 오폭사건, 티베트문제, 대만문제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대체로 중국공산당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이 평화적 방법(和平演變: peaceful evolution)으로 중국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즉 민족주의적 정서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민중들의 민족주의적 정서와 사회주의이념의 쇠퇴는 중국내부에서 지식인들의 중국고유의 사상과 문화를 복원시키자는 운동에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강택민시대의 초기부터 지속되어온 현상이다. 1991년 강택민은 창당 70주년기념행사에서 중국식사회주의의 실현은 위대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더불어 세계문화의 학습과도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세계에 중국의 문호를 개방해야한다는 복합적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¹⁴⁾ 강택민, 李瑞環같은 지도자들은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과 덕치(rule of virtue)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고 강택민의 “3개대표론” 등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샤오 공친(Xiao Gongqin)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사회주의이념이 쇠퇴하는 데 대한 새로운 이념의 개발로 보고 있다.¹⁶⁾

14) “Jiang Zemin zai qingzhu Zhongguo gongchandang chengli qishizhounian de jianghua”(“Talks at the Celeb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CCP”), Zhonggong zhongyang wenxuan yanjiushipian (the Research Office on Documentary Records in the CCP), Shisanda yilai: zhongyao wenxuan xuanpian (The Selected Important Documents Since the 13th Party Congress), Vol. 3, (Beijing: Renmin chubanshe, 1993), p. 1644.; “Dechaijianbei, yideweizhu: lun xuanfanganbu de biaojun”(“Virtue and Talent: Virtue in Command: On the Standard of Selecting Cadres”), Renmin ribao, 1 September 1991, p.1.

15) Renmin Libao, January 11, 2001, pp. 1 and 4. For the issue on “the rule by virtue” and “the rule of law”, see Zheng Yongnian and Lai Hongyi, “Rule by Virtue: Jiang Zemin’s New Moral Order For the Party”, EAI Background Brief No. 83, 12 March 2001.

16) Xiao Gongqin, “Dongya weiquan zhengzhi yu xiandaihua”, (“East Asian authoritarian politics and modernization”), in Zhanlue yu yanjiu (Strategy and Management), No.3 (1994), p. 28.

이는 새로운 중국의 결속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중국공산당이 대중정당으로 변화하는 데 장기적인 이념적 변신이—의 일환이며¹⁷⁾ 인권문제, 대만, 티베트 문제 등에 대한 미국 등 서구의 압력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항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서구식의 발전과 개혁보다는 중국식의 발전과 개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¹⁸⁾

지식인들의 논쟁

지식인들의 논쟁 또한 연성의 변화에 대한 이념적 정당성 혹은 중국식의 체제변화와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허바오강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인민의 정부에 대한 우위를 말함인데 그 인민의 정의는 개인(individualist)으로서의 인민이 아닌 집단의 일원(collectivist)으로서의 인민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사회주의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사회의 다른 이익들의 충돌을 해결하는 원리라고 한다. 또한 공산당에 의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¹⁹⁾

샤오공친은 1980년대 중국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루소의 극단적 자유주의(extreme liberalism)를 추종하였으나 1989년 천안문사태 이래로 소련과 동구의 급격한 몰락을 목격한 이래로는 1990년대부터는 하이에크(Hayek)의 온건한 자유주의(moderate liberalism)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²⁰⁾ 즉 자유주의 그 자체보다도 사회의 안정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이고 급격한 민주화에 대한 태도를 상당히 완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

reprinted in Feng Chen, "Order and the Stability in Social Transition: Neoconservative Political Thought in Post-1989 China", p. 609; Xiao Gongqin, "Cong minzhuzhuyi zhong jiequ guojia ningjuli de xinziyuan", ("Deriving from nationalism a new resource that congeals the state"), Zhanlue yu guanli, No.4 (1994), p. 21.

17) In the Chinese Socialist Democratic Party, see "China Progresses with Times", CNN, 5 September 2001. (Accessed January 9, 2002), <http://asia.cnn.com/2001/WORLD/asiapcf/east/09/04/china.ccp.willy/>; The Xinhua News Agency, "Jiang Zemin tongzhi zai quanguo dangxiao gongzuo huiyi shang de jianghua" (June 9, 2000) (Comrade Jiang Zemin's Talk in National Party School Working Conference), People's Daily, July 17, 2000.

18) Yongnian Zheng,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90.

19) He Baogang, "China", in Wolfgang Sachsenroder and Ulrike E. Frings (eds.), *Political Party Systems and Democratic Development in East and Southeast Asia, Vol.2: East Asia* (Sydney: Ashgate Publishing, 1998), pp. 45-46.

20) Xiao Gongqin, "Jiushi niandaiyilai zhongguo zhishifenzi de sixiangfenhua" ("Multiplization of Chinese Intellectuals' Thoughts in the 1990s"), *Dongya Lunwen* (East Asia Monograph), No.38, East Asia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January 29, 2001, p. 4.

다. 여기에 민족주의적인 대중의 정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슈쥬위(Shih Chih-yu)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민주화와 정치발전, 체제변화에 대해서 “집단적 민주주의”(collective democracy)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국의 체제변화는 사회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주의를 신장시키려는 게 아니고 사회조직 안에서의 개인주의를 의미하여 즉 이것은 공동체주의의 진작이라고 한다. 이 같은 그의 논의는 중국의 체제변화에 대한 특성과 전망으로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²¹⁾

이와 같이 중국의 체제변화와 특성에 대한 논쟁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서구적 가치들을 중국식의 공동체주의, 개인과 사회의 조화의 추구 같은 가치들과 접목시키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간의 타협과 결합을 모색하려는 논쟁도 우리의 주목을 끌 만하다고 본다. 이 논쟁의 주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반드시 대결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다.²²⁾

중국의 지식계에서의 민족주의와 신좌익주의자들(new-leftists)은 그 쟁점 상 그다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양자간의 공통점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민족주의적 정서를 부정하지 않으며 “개인자결권”(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을 옹호한다. 자유주의자인 리우쥬닝(Liu Junning)은 “민족자결권”(national self-determination)은 개인자결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자결권은 그에 의하면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실현이 되어야한다고 한다. 이런 조건에서 라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양대 조류는 공통점을 모색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또한 그럼으로써 민족주의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²³⁾

신좌익과 민족주의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하버마스(Habermas)의 “헌법적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의 개념에서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²⁴⁾ 하버마스에 의하면 현

21) Chih-yu Shih, *Collective Democracy: Political and Legal Reform in China*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99).

22) Qin Hui, “Ziyou zhuyi yu minzhuzhuyi de qihedian zai nai?” (“Where is common point between Liberalism and Nationalism”), *Tianpingji*, Qin Hui (Xinhua chubanshe, January 1998); Liu Junning, “Minzhuzhuyi simianguan” (“Nationalism from All Angles”), *Gunghe*, Minzhu, Xianzhen: *Ziyou zhuyi sixiang yanjiu* (Republic, Democracy, Constitution: Study of Liberalist Ideas), (Shanghai: Shanghai sanlian shudian, December 1998).

23) Liu Junning, “Minzhuzhuyi simianguan”(“Nationalism from All Angles”), *Gunghe*, Minzhu, Xianzhen: *Ziyou zhuyi sixiang yanjiu* (Republic, Democracy, Constitution: Study of Liberalist Ideas), (Shanghai: Shanghai sanlian shudian, December 1998).

24) Jurgen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trans. By Wil:laim Rehg (Polity Press, 1996); Jurgen Habermas, *The Inclusion of the Other: Studies in Political Theory*, edited by Ciaran Cronin and Pablo DeGreiff (The MIT Press, 1998).

대 정치공동체의 구조는 더 이상 자연적 혈통(natural lineage), 혹은 문화적 유사성(cultural affinity)에서 유지되는 아니라 비자연적 사회적 계약(unnatural social contract)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하며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한다. 현대주권국가에서 인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정치적 소속감(political affiliation)과 시민으로서의 자각(awareness of citizenship)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것이 헌법적 애국심이다. 그는 오직 이러한 비자연적인 계약에 의한 인민이야말로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현실적 인민”(realistic people)으로 될 수 있으며 민족주의와 공화주의(혹은 민주주의)와의 상호 간극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만일에 모두가 동포라는 자연적 개념의 인민개념이 더욱 강화되면 중국에서 이제 발아하는 민주주의적 헌정체제(democratic constitutional system)는 쇠퇴할 것이라고 설파한다.

중국의 좌파와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은 하버마스의 민주주의와 정치참여는 불가분이라는 이론에 따라 그의 “사적영역은 정치참여의 전제조건”이라는 말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²⁵⁾ 즉 인민은 개인의 자유 혹은 수동적인 자유(passive freedom)가 없으면 정치참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간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자유주의자는 수동적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며 민족주의자들은 여기에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이 “민주주의적 민족주의”(nationalism with democracy)에 동의하고 호전적이고 편협한 민족주의를 포기한다면 자유주의에서 어떤 좋은 면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²⁶⁾ 이러한 면에선 민족주의자들의 최우선목표는 헌정적 민주주의의 건설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국내의 요구와 외부의 압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은 타미르(Tamir)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에 공감하고 있다.²⁷⁾ 타미르는 자유주의가 귀속감, 충성, 단결과 같은 민족주의적 개념과 반드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 양대 사조가 완전히 대치되는 게 아니라 단지 선호도가 다를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이들을 서로 보충해주는 중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안에서의 인민과 개인으로서의 인민이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민족자결주의를 포용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주의와 타미르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연성의 체제변화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중국지식인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리우권잉과 쉬지린(Xu Jilin)이 논의하듯이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민족주의적 정서를 부정하지 않으며 민족주의를 맹목적 애국주의와 국가주의와 동일시하고 있지 않다고 한

25) Jurgen Habermas, *The Inclusion of the Other: Studies in Political Theory*, edited by Ciaran Cronin and Pablo DeGreiff (The MIT Press, 1998), p. 120.

26) Wang Xiaodong, “Zhongguo de minzhuzhuyi he zhongguo de weilai”(“Chinese Nationalism and Chinese future”), (<http://www.pen123.net>).

27) Yael Tamir, *Liberal National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다. 그들이 배척하는 것은 급진적 민족주의이며 개인의 자결권을 보장하는 온건한 합리적 민족주의에는 우호적이라고 밝히고 있다.²⁸⁾

이 같은 논의들에서 보듯이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사회와 지식계에 민족주의적 정서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자유주의적 요소를 민족주의에 접목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족주의의 급진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자유주의적 발전보다는 점진적인 사회의 안정과 조화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⁹⁾

중국 지도체제 변화기에 있어서 대한반도 정책

유래 없는 평화적인 지도체제의 교체로 후진타오 지도체제에서도 한반도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듯하다. 중국은 모든 노력을 국가의 개혁에 쏟을 것이다. 즉 과감한 경제개혁과 반면에 점진적인 정치개혁이 21세기에든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므로 개혁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유지하는 게 일차적인 대외정책 목표이다.

강택민 이후의 중국의 새로운 지도체제는 한반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에 의해서 외교정책기조를 설정할 것이다: 90년대 중반이래로 미-일 “신안보지침”에서 보듯이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확고한 군사력 증대에 대한 의지의 표명,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대북강경책과 이에 따른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제제 가능성, 국가 미사일방어망체제의 구축 등이다.³⁰⁾ 중국은 이러한 요인들이 중국과 미국-일본 혹은 중국과 미-일-한국 양측사이의 충돌로 발전할 수 있는 것에 경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키 위한 예방외교의 차원에서 대한반도외교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미간의 예상치 못한 외교적 혹은

28) Xu Jilin, “Zhongguo xiandai minzhuzhuyi he fanxifang sichao”(“Chinese Modern Nationalism and Anti-Western Tide”), Mingbao yuekan, March 1997; Liu Junning, “Minzhuzhuyi simianguan”(“Nationalism from All Angles”), Gunghe, Minzhu, Xianzhen: Ziyou zhuyi sixiang yanjiu (Republic, Democracy, Constitution: Study of Liberalist Ideas), (Shanghai: Shanghai sanlian shudian, December 1998).

29) Zhang Chenlong, “Zaizhiyouzhuyi yu minzhuzhuyizhijian: Jiu-yi-yi zhihoude zhishijie”(“A Debate between Liberalism and Nationalism: China’s Intellectual Community after the 9-11 Terror”, Unpublished manuscripts, February 2002, pp. 15-16.

30) Avery Goldstein,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in Byung Chul Koh, ed.,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The Summit and Its Aftermath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2002), pp. 199-200.

극단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가 지나치게 미국의 이해에 맞게 귀결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의벼랑 끝 외교(brinkmanship diplomacy)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비난강도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약한 것에서 이러한 자세를 알 수 있다.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국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과 교섭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노무현 당선자에 대해서 강택민이 “대통령 당선을 열렬히 환영 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한국의 “독립자주외교”가 지칭학적으로 볼 때 미국에 비해서 인접한 중국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증거이다.

노무현 당선자와 후진타오는 같이 50대의 새로운 세대라는 점에서 중-한 간에 외교적인 온기류가 형성이 될 수 있다. 특히 노무현의 “독립자주외교”는 “햇볕 정책”과 함께 미국-일본의 동맹체제를 상대하는 중국과 북한의 입맛에 들어맞는 외교로서 앞으로 중-한 양국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기류를 형성할지 주목할 만하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평소와는 달리 “마늘분쟁”과 “국회의원입국비자의 발급거절”과 같은 사건에서 보듯이 오만한 외교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은 중국을 “마음씨 좋은 큰형님”이라는 이미지와 “무서운 거인”이라는 이중의 이미지를 가지고 조심스레 대처하는 게 좋다.³¹⁾ 막연히 일본보다는 우호적인 대국이라는 소박한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31) KO Sung Bin. “S. Korea’s View of China: Mixed Feelings Towards a Neighboring Giant”. EAI Bulletin, Newsletter of East Asian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vol.4 Issue 1, March 2002, p. 8.